축복은 시작이고 밑천이다

(창32:13~32)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은 시작이고 밑천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축복은 시작이고 밑천이다'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그 결과로, 종착역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주셨으므로 신앙생활의 결론은 축복이다.'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축복은 모든 사람과 특히 선민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점이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갖추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밑천이고, 그것으로 앞으로 사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신앙생활을 잘한 결론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름이었어요. 천하장사 씨름대회.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일을 보고 TV에서 씨름대회가

중계되는 것을 알고 청와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씨름대회 시작을 한 시간 미룬 적도 있습니다.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오늘의 얘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대통령을 하시던 분의 대통령답지 못함과 대통령 주변의 보좌관답지 못한 권력에 대한 오해들을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돌아와서 TV를 봐야하므로 씨름대회를 한 시간 늦춰서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어쨌든 이때의 씨름대회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만기 씨에요. 그 분이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천하장사가 되어서 받은 상금이 1,700만원인데 33% 세금을 떼고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1,200만원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그 당시에 26평 아파트의 값이 350만원이었습니다. 1,200만원이면 아파트 4채를 사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돈이죠. 그런데 이 1,200만원을 받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200만원은 선배들에게 용돈으로 나눠드리고, 500만원은 고향인 마산에 내려가서 후학들의 발전기금으로 기증하고, 500만원은 금의환향하여 마산전체에 잔치를 열고났더니 남는 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야곱이 얍복 강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옛날의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소를 놓고 씨름을 해서 천하장사가 황소 한 마리 타고, 1983년도 천하장사 1회 때에는 이 만기 씨가 천하장사가 되어서 1,700만원 상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합니다.
야곱은 천하장사가 아니고 천상천하통합장사입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졌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으니 천상천하통합씨름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처럼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본문도 달리 없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씨름을 걸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졌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이 만기 씨는 1,700만원을 놓고 참가했고, 옛날의 씨름 장사들은 황소 한 마리를 놓고 출전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얻으시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셨는지 불분명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문들이 생기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 속에서 보듯이 야곱은 축복을 놓고 벌인 씨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가족과 막대한 재산이 생겼습니까?
이것들이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 앞에서 간구했던 것은, 에서의

위협과 분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것이 지금 야곱이 간구했던 축복의 내용이고 씨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것은 얍복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분명한 것은 야곱이 축복을 원했고 축복의 내용은 에서로부터 지켜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에서와 라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을 놓고 싸운 결과 라반에게 승리하고 에서에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장자권을 탈취했으니까.
라반은 이렇게 막대한 재산이 야곱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품삯의 조건을 수 없이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얻었으니 라반에게서도 승리를 했고, 오늘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에게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이었던 먼저 싸움을 거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씨름을 해서 얻으려고 했던 상이 무엇이었을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면 하나님께는 무엇이 주어졌겠는가를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승리의 올바른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합니다. 야곱이 승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 얻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야곱의 승리가 좋다 나쁘다 구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야곱이 이겼다는 소리가 무조건 좋은 것인 줄로만 압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는 얍복 강가의 모습은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을 향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 모범이 되고 전형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신앙의 넌센스가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얍복 강가의 씨름 장면이 신앙에 미친 악영향은, 어느 못된 독재자가 나라에 미친 악영향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씨름을 이겨서 갖기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축복을 향한 끈질긴 간구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씨름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야곱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려고 씨름을 하셨다면 그것은 시험이라고 해야 합니다.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못 이루시고,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축복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반영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로 쳐내십니다. 얼마나 축복주기를 꺼려하셨으면 이렇게 환도뼈를 칠 정도로 거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얻을 복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셔서 구하지도 않은 모든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시작할 때에 아예 처음부터 주신 것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본성이시므로, 쟁취하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타락 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타락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방사(放射)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도록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본성이시고, 본성상 선민을 택해 그 선민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방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싸움은 축복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통해서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앞서 있었던 마하나임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이 에서와 싸우신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그 군대가 한 일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32장에는 하나님의 1승 1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서 에서가 야곱을 향한 형의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과는 반대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야곱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직도 자기 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가족과 막대한 재산을 다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야곱의 얍복강 사건은 의미상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시험이었고, 야곱은 주어진 모든 축복을 버리는 것이 씨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들을 버리면서 출발합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을 삽(買)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중한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안정된 삶의 근거는 소중한 것이고 복이고 밑천입니다.
하나님은 이 밑천을 팔아서 하나님을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게 시작이고 밑천이고, 그 밑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마음에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 마음이 죽음으로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고 밑천이고, 이 밑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의미를 담아놓은 존재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 아내, 아들, 땅 다 축복인데 그것들을 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단계, 어느 정도로 소중한 것들을 팔면서 하나님을 사는가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삭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22: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락하시는 복을 마음으로 버려본 적이 없으므로, 얍복 강에서 에서를 통해서 생긴 불안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씨름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세상 복을 쥐고 있는 손을 펴게

하는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주는 두려움 앞에서 이 복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복을 지켜달라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밑천으로 주신 축복으로, 최상의 복인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씨름을 하시다가 결국 야곱에게 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갖는 일은 로봇이나 기계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의 자아와는 상관없이 강권적이고 기계적으로 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독자까지 바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체성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주체성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축복을 밑천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 생겨서는 안 될 이름이었습니다.
선민이 왜 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주신 복을 주님의 십자가로 분해해 내는 것입니다. 마치 포정의 칼 솜씨처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므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나의 모습에 어울리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죽는 그 상태가 원래 내 상태이고 그게 내 본전의 모습이므로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장애가 있는 상태가 낫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분리해 낸 다음에 그 축복과 하나님 사이에서 축복을 팔아서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축복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나와 분리시킨 이 세상의 복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정하신 자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요구하시며 계속해서 씨름을 하십니다.
예수님 때에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씨름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돈과 기득권을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다 놓으라고 하는데 못 놓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결론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본전도 유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는 축복을 갖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버리기가 쉬우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유리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벧엘에서 잠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상태를 자기의 본래 상태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이 두려움 앞에서 기꺼이 욥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찌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셔 들일 수 있습니까?
이삭을 버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 들일 수 있습니까?
축복인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십니까?
존재 자체가 축복인데 왜 존재라는 축복 자체를 주십니까?
시작이고 밑천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OK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축복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미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았어요.
작은 축복을 받은 이유는 팔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세상적으로 작은 축복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것이 작아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도층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것이 커요. 이 큰 것을 과연 팔아야 되느냐 마느냐로 고민하거나, 아예 고민도 안하며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 위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

님을 다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태희 씨나 장 동건 씨 같은 외모로 태어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낫습니다.
내 몸, 내 목숨, 내 외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장 동건 씨에 비하면 내 다리가 짧지만, 길고 멋진 다리 파는 것보다 내 못생기고 짧은 다리 파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못 생겼다면 잘생긴 사람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이고 최후적이고 결론적인 복이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들이기 위해서 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더라도, 날마다 포정의 칼놀림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들을 분해해 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흡수되고 꽉 붙들려서 야곱처럼 이걸 보장해주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은 앞으로도 야곱이 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자식의 축복, 배우자의 축복, 가지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아까워할 만한 모든 축복을 마음에서 팔아서 결정적이고 최후적인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결론이 아니라 밑천과 시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적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팔기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은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을 십자가에 거시는 겁니다. 몸 하나 있는 것 파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들이신 거예요.

축복은 시작이고 밑천입니다. 축복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차이인데 적게 받을수록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사기가 용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팔아서 하나님 사시는 밑천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민이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모든 소중한 축복들을 밑천삼아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